

합평군 귀농귀촌 정착사업 무산... 책임 공방

서울농장 조성사업, 서울시의 계약 불수용 통보 '결렬'
"합평군 사업 의지 없었다" vs "협상 무산일 뿐" 군 반발

전남 합평군(군수 안병호)은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려 했던 서울농장 조성사업 계약이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무산됐다고 14일 밝혔다.

합평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두 지자체가 공유재산 매각 의결과 예산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실습농장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서 상 특약등기 명기를 두고 두 지자체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서울시(계약심사단)가 합평군에 매매계약 불수용 통보함에 따라 최종 무산됐다.

서울농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시군과 협력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 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합평군에 조성하기로 합의하고 각자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밟아왔다.

합평군은 이 사업에 구 석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체험농장을 추천하며

군 공유재산 심의회와 군 의회에서 구 석성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서울시 매각카로 의결하고 2016년 3월에는 공유(군유)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매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서울시도 2016년 본예산에 서울농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총 19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구 석성초등학교 부지와 인근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이 큰 잡을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개인 소유인 농장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매도 희망 여부를 표했고 합평군에 대체 부지 선정과 실습농장 제공을 요청하면서 소강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대체부지는 합평군이 당초의 부지를 임대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점을 도출해 냈으나 사업의 장기적 추진과 공

유재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실습농장 부지 1만㎡ 이상 취득 또는 5년 이상 임대기간을 매매계약서 상 특약등기에 명기해야 한다는 합평군의 입장과 명기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서울농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 21일 합평군에 계약 불수용 통보를 하며 끝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이번 결렬을 놓고 합평군수 선거 출마자 등 일부가 "합평군의 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돼 예산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합평군은 해당 주장에 반발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협상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된 것일뿐 사업 의지 부족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석형 전 합평군수(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박래옥 더불어민주당 합평·영광·장성·담양 수석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예산 낭비'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 반박하기도 했다.

이남규 기자 diskarb@

제주항, 국경 검역 수준 '차단방역' 구축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검역센터' 올해 설치

제주도에 국경 검역 수준의 방역 시스템이 구축된다.

제주항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익천)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제주항 동물검역센터'를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치지는 지난해 6월 제주도 방역 사상 처음으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오골계가 전북 군산에서 반입돼 도내 농가 6개소에서 발생 후 제주항에 국경 검역 수준의 차단방역 체계 구축 필요에 따라 센터 설치가 추진됐다.

총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해 가축운송차량 세척 및 소독 강화를 위한 거점소독시설과 전담 방역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사무실 등 지상 2층 350㎡ 규모로 제주항 6부두 내에 올해 중 설치할 계획이다.

검역센터 설치가 완료되면 제주항을 출입하는 모든 가축운송 차량의 내·외부 대인소독, 소독필증 자동 발급 등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제주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은 물론 반입품목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 제주로 가금산물이나 돼지고기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금지 가축 및 산물 품목 고시'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호선 기자 geschaff.a@



동물위생시험소 제주항 검역 현장 모습.

제주도청 제공

'경제난'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신청 나서

22일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

울산 동구(구청장 권명호)가 22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동구를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신청은 19일 열린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울산 동구는 고용노동부가 있는 세종시를 직접 방문해 중앙부처에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할 타당성을 담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동구의 입장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지역지정이 확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일자리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구는 이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조선업종에 국한돼 있어 조선업종 이외의 사업장이나 지역 내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조선소 모습.

울산 동구청 제공

정을 감안해 동구는 조선업 불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동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2016년 5월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건을 울산시 10대 종합지원대책의 하나에 포함해 울산시를 통해 중앙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에는 산업자원부 지역경제정책과의 간담회, 12월 통영·거제 방문,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장과의 고용노동부 협의를 통해

수차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건의해 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의 고용보합·구직급여 피보험자 증감률, 평균 피보험자 수 등의 변동사항이 고시된 기준을 충족했을 시 가능하다.

울산 동구는 고용보합 피보험자 수가 2014년 대비 2017년에 26.6%가 감소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0호 제4조제1항4호'의 기준인 7%를 훨씬 상회해 법정 충족기준을 갖춘 상황이다.

김수진 기자 neunga@

지진 상처 포항시, 문화로 재단장

천안·군산시, 부산 영도구 등 4곳 문화도시재생사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2018 문화재 도시재생 사업'에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 충남 천안시, 전북 군산시 등 총 4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문화재생 사업은 도시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해 접제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지자체를 시범으로 선정해 쇠퇴한 지역 내 유류 다중공간의 문화적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문화재생의 우수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공간 활용의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사업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심사를 통해 포항시, 천안시, 군산시, 부산 영도구 등 4곳이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경북 포항시는 북구 중앙로 일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공간과 콘텐츠를 연계해 도심문화예술 중심지(허브)를 조성한다. 부산 영도구는 남항동 대평

로 1·2가(구 대평동)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문화사랑방과 동네작소(메이커스 스튜디오)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충남 천안시는 남산 중앙시장 입구에 있는 유휴 공간을 세대 간 상생공간으로 구축한다. 전북 군산시는 원도심 일대 고지대마을인 신흥동 근대마을을 조성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과 주민 이야기를 발굴해 문화행거 장소로 재구성한다.

문화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프로그램 사업비(1곳당 국비 8000만원 내외, 지방비 별도)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맞춤형 컨설팅, 각 지역 사업 담당자 간 연결망 등이 지원된다.

문체부 고육성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문화재생 모델을 찾아내고 장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문화적 관점에서 공간과 도시를 재구성하는 문화재생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근 조사위원

자치광장

원주 소금산 방문객 50만명 돌파

강원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지난 1월 11일 개장 후 70일 만에 방문객 50만명을 돌파했다. 원주시청 관광과는 50만 번째 방문한 관광객 박지혜(분당) 씨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오코넬리에서 제공한 숙박권 2매와 원주시 관광기념품을 선물하는 깜짝이벤트를 가졌다.

간편관광지는 1984년 원주시 유일의 관광지로 조성된 후 가족 단위 관광객 및 대학생 MT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1990년대 시설 노후와 여가생활 변화 등으로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는 관광시설 현대화와 관광객 증가를 목적으로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설치했다. 그 결과 70일 만에 50만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원주군,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원주군이 전국 최초로 은퇴자들을 위한 공동사무실을 운영한다. 19일 원주군은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이광재 사무총장)와 '4060세대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은퇴자 삶 재설계 등에 대한 내용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향후 원주군은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와 함께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경력, 특기, 희망 진로에 따른 강좌개설,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등을 위한 공동사무실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흥군 여성회관 4월 착공

고흥군(군수 박병준)은 20일 고흥군정 흥양홀에서 박순업 여성단체 회장 및 회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여성회관 건립사업 최종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9월 군비 26억 원을 확보해 고흥을 신계학림길 39 일원에 지상 3층, 건축면적 997.78㎡ 규모의 고흥군 여성회관을 오는 9월에 준공 목표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 및 벤치마킹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취약업종 상담실, 요가 및 체력장, 프로그램실 등의 여성회관 공간이 배치됐다.

2016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왕

다도해의 보물선 - 여수 디오션리조트

호텔 | 콘도미니엄 | 컨벤션·세미나 | 웨딩·가족연회 | 골프장 | 워터파크

천혜의 촉박반은 아름다운 다도해가 펼쳐진 이곳에서 아침햇살이 보석처럼 부서지는 장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디오션리조트

검색

대/표/번/호 1588-0377
전남 여수시 소호로 295(소호동)
theoceanresort.co.kr

다도해의 보물선이라 불리는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남해의 푸른 바다를 향하는 특급 호텔과 콘도미니엄을 비롯해 골프장, 워터파크, 스파&사우나와 컨벤션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의 고객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명품 해양리조트입니다.

